

유학생을 위한 시험 답안 작성법 교육 연구

이 승 연

Abstract

Lee, Seungyeon. 2012. 2. 28. **Pedagogical method of creating exam answers for KAP learners.** *Bilingual Research* 48, 343-368. The following paper first analyzes the textual characteristics of exam answers that are shared by academic discourse community of Korean universities and focuses on presenting pedagogical method of creating exam answers for KAP learners. Currently,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studying in Korea is continuously increasing, and researches examining the construction of KAP proficiency necessary for these students and searching for pedagogical method have been done in polymorphous ways. Researches on teaching academic writing are actively performed much more than other language skills as the needs in this domain are the greatest. However, researches on academic writing are heavily focused on writing reports therefore researches on other writing tasks are becoming more in demand. The following paper presents pedagogical method for creating exam answers by introducing genre-based approach, analyzing exam answers filled out by Korean students and international students in order to search for pedagogical method of creating exam answers which is one of very important tasks for KAP learners. (**Sejong University**)

【Key words】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teaching Korean for academic purpose), 시험 답안(exam answers), 장르 중심 접근법(genre approach), 답안 작성법(creating exam answers)

1. 서론

이 연구는 유학생들의 시험 답안 작성 방식을 한국 학생들의 답안 작성 방식과 비교하여 특성을 찾아내고, 학문적 상황에 맞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텍스트는 각 유형(장르)에 따라 특정한 언어적, 형식적 양식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양식은 그 텍스트가 어떤 언어권 혹은 문화권에서 생산되고 공유되느냐에 따라 비록 같은 장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양상을 띤다.(Kaplan 1966) 모어 화자는 그 문화권에서 삶을 영위해 오면서 자신이 속한 담화 공동체와의 지속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 이러한 양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은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던 모어의 담화 양식과 다른 텍스트 양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극복해 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새롭게 익혀야 할 텍스트 장르의 언어적, 형식적 특성에 집중하도록 도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대학 혹은 대학원에서 학업을 수행 중인 유학생들은 학문적 맥락에서 통용되는 특수한 양식을 습득하여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이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그들의 최종 목적인 학업에서의 성공 여부와 직결되므로 중요한 학습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시험 답안’ 역시 학문적 텍스트 중에서 특유의 양식을 지니고 있는 것 중 하나이다. 대학 혹은 대학원에서 수학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시험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여기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모범적인 양식의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¹⁾

1) 학문적 상황에서 텍스트를 생산하는 일은 학습자들의 개인적 발전과 성취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학습자들에게 한국어는 그 자체가

학습자들이 학문적 상황에서 생산해 낸 텍스트, 예를 들어 보고서, 논문, 비평문, 시험 답안 등은 대부분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독자(담당 교수)에 의해 읽히므로²⁾ 한국어를 이용한 의사소통 활동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이러한 의사소통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의 담화 구조와 어휘, 기능, 격식, 형태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³⁾

그렇다면 다른 쓰기 과제와 구별되는 시험 답안의 특성은 무엇인가. 시험 답안은 일반 보고서나 논문 등의 다른 학술적 텍스트에 비해 길이가 짧다. 즉, 시험 문항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몇 단락의 짧은 분량의 텍스트 내에 집약적으로 기술해야 하므로 고도의 쓰기 기술과 순발력이 필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시험(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은 특정 기간 동안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지식수준이나 논리력을 입증하려는 목적 하에 제한된 시간 내에 실시되므로, 여타 쓰기 과제에 비해 계획하거나 고쳐 쓰기에 주어진 시간이 충분치 않아 완성도를 높이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활동일 수밖에 없다.⁴⁾

목적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 이르게 하는 도구의 성격을 강하게 띤다. 따라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은 그들이 스스로 설정한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관련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뒷받침해야 한다.

- 2) 이러한 관점에서 답안 쓰기는 명백한 독자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평가를 받기 위한 뚜렷한 목적을 가진 글쓰기이므로 상호작용을 통한 의사소통 의지가 매우 강하게 내재된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
- 3) 김정숙(2009)에서는 학문 목적 학습자들의 쓰기 교육에서 형식적 측면에 대한 교육보다는 내용 지식을 구성하고 이를 텍스트로 표현해 내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부분의 학술적 쓰기 상황에서 충실한 내용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험 답안은 학습자들이 이미 수업 시간에 학습하였거나, 시험에 대비하면서 준비해 둔 내용으로 작성하는 특수한 유형의 과제이기 때문에 이미 준비된 내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빠른 시간 안에 기술할 것인지를 지도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답안 작성 교육은 내용 구성보다는 형식 지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유학생들은 해당 과목에서 학습한 내용을 충실히 익히는 것 외에도 답안을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미리 익혀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학이라는 담화 공동체에 의해 공유되는 시험 답안 작성 방식에 대한 이해, 즉 답안 텍스트의 유형과 수사적 특질, 격식 등에 대한 사전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답안 작성에 대한 충분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그 수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선행연구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육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있어 왔다.⁵⁾ 국내 유학생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던 시기에 학문 목적 한국어를 위한 특화된 교육과정 및 교수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연구로 김정숙(2000), 김인규(2003), 이해영(2001) 등을 들 수 있다. 이후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의 각 하위 영역에서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그 중에도 쓰기 교육 분야의 연구에서는 눈에 띄는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학문 목적 쓰기 교육 연구는 학술적 텍스트 분석을 기반으로 쓰기 교육 방안을 모색한 연구(용재은 2004, 이원구 2005, 목계연 2008, 신필여 2008, 김정남 2008 등), 쓰기와 다른 기술-특히 읽기-과의 통합교육 방안

-
- 4) 이러한 차이 때문에 담당 교수들이 상대적으로 보고서 과제에 대해서는 높은 완성도를 기대하고, 시험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러한 기대를 덜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인터뷰에 응한 전공 교수들은 유학생과 일반 학생들을 공정하게 평가하려고 노력하나 사실상 외국인 학생들의 답안에 대한 기대치가 다소 낮은 것은 사실이라고 답하였다.
- 5) 김인규(2003:84)에서는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의 대상을 첫째, 국내 대학에서 한국어를 사용하여 학업을 수행하는 유학생, 둘째, 외국에서 한국과 관련한 학업을 수행하는 학생으로 나눈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첫째 부류에 속하는 학생들, 즉 국내 대학에서 한국어로 학업을 수행하는 유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을 모색한 연구(김정숙 2007, 김지영a 2007, 김지영b 2009 등), 사회적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한 학문 목적 작문 교육에 관한 연구(최은지 2009), 학습자 쓰기 텍스트 분석을 바탕으로 한 연구(진대연 외 2006, 정다운 2007, 정다운 2009) 등이 있다.

그런데 기존의 쓰기 교육 연구 가운데 시험 답안 작성에 관심을 기울인 연구는 드문 편이다. 김인규(2003)과 홍정현(2005)에서는 시험 답안 쓰기 과제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간접적으로나마 엿볼 수 있다. 김인규(2003:102~103)에서는 학업 기술(study skills) 중 쓰기 관련 과제들을 제시하고 중요도를 점수로 표시하도록 하는 요구조사를 실시했는데, 유학생들은 ‘강의 내용 요약하기(36점)’, ‘교재 내용 요약하기(32점)’, ‘보고서(32점)’, ‘시험(30점)’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그 중 ‘시험’은 30점으로, 제시된 네 가지 쓰기 과제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김인규(2003)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사실상 네 항목의 점수가 서로 비슷하여 그 중요도에 대한 인식 역시 큰 차이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홍정현(2005:24)에서는 쓰기 과제 난이도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학부 학생들과 대학원 유학생들이 ‘보고서(47.5%), 발표물 작성(26.7%), 시험지 답안(11.9%), 노트 필기(7.9%)’ 순으로 어렵다고 응답한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시험 답안 작성은 보고서나 발표물의 난이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긴 하지만 시험 답안 작성에 대한 학습자들의 부담감이 무시해도 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⁶⁾

이 외에 유학생들의 시험 답안 자료 분석을 포함한 연구로는 신필여

6) 윤경숙(2007:51)에서도 쓰기 과제에 대한 요구도 조사 결과를 밝히고 있는데, 설문에서 제시한 일곱 가지 쓰기 과제- 노트 필기하기, 요약 정리 보고서 쓰기, 조사 분석 보고서 쓰기, 평론 보고서 쓰기, 감상문 쓰기, 발제지 만들기, 시험 답안 작성하기-중 답안 작성하기는 낮은 요구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를 다른 과제에 비해 낮은 빈도로 실시되는 과제이기 때문이며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이 학기 수가 낮아 아직 시험의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2008)가 있다. 이 연구는 학문 목적 학습자들을 위한 설명적 쓰기 교육 연구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시험 답안을 분석하고 이를 한국인 대학생들의 설명적 텍스트와 비교하여 학습자들의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설명적 텍스트 교수 학습 방안을 제안하였다.⁷⁾ 그러나 이 연구는 설명적 텍스트의 하나로 시험 답안을 다룬 것이며 시험 답안을 하나의 유형으로 보고 그 특성을 연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비슷한 시기에 윤경숙(2007)에서는 학문 목적 학습자들을 위한 쓰기 교재 구성에 ‘시험 답안 작성하기’를 독립된 과제로 다루었으며, 이를 개념 정의 중심의 단답형과 서술형 두 유형으로 나누어 교육 내용에 포함시킨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교육 방안의 제시가 없다는 점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남았다.

김은정(2010)에서는 유학생들의 요구조사를 기반으로 교양 한국어 교수요목을 작성하면서 시험 답안 작성하기를 하나의 학습 기술로 포함시켰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에서는 답안 쓰기 교육의 당위성이나 학습자들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짧은 답안 쓰기 연습, 시험 문제 보고 답안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단어 찾아 쓰기, 답안 예시 보고 주요 문장 찾아 요약하기, 답안 개요 작성해 보기’ 등의 몇 가지 과제와 학습 활동을 제안하여 기존의 연구보다 답안 작성 교육의 비중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교양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 다루게 될 다양한 과제 유형의 하나로 시험 답안 작성에 대해 언급하였을 뿐이며, 유학생들이 답안 쓰기에서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피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는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들이 작성한 쓰기 자료를 분석한 뒤 두 텍스트의 차이를 확인하고 유학생들의 답안 작성이 보이는 특성 혹은

7) 이 연구에서는 70여 개의 학부 강의계획서를 분석하고, 각 과목의 평가에서 시험의 비중이 50% 이상인 과목이 78%를 차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학부 수업에서 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제점을 파악할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발견된 한국어 답안 텍스트의 담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시험 답안 작성 교육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요구 조사

유학생들의 답안 작성에 대한 요구는 시험 답안을 평가하는 주체인 교수들로부터 조사하였다. 답안 작성에서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유학생을 현재 지도하고 있는 교수들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⁸⁾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외국인 학생의 답안을 채점할 때 명시적인 분석 기준을 사용하는가?
- (2) 외국인 학생 답안 채점 시 가장 중요하게 살피는 것은 무엇인가?
- (3) 언어적 요인(문법, 어휘 등)은 채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 교수들은 모두 명시적 평가 기준표를 마련하여 사용하지는 않으나, ‘문제에서 요구한 내용이 답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가’, ‘내용이 논리적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사고가 독창적인가(필요한 경우)’, ‘적합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등은 암묵적으로 평가에 적용하는 기준이라 밝혔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유학생들의 답안지에서는 ‘답안의 형식적 측면’, ‘적절한 담화표지의 사용’, ‘문어체, 격식적 언어 사용’ 등을 중요하게 살피는다고 답하였다. 또한 답안 작성 시 문항에서 요구된 내용은 아니지만 주제와 관련하여 학생들 자신이 더 알고 있는 내용을 추가하는

8) 인터뷰는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며, 위의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한 대화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인터뷰에는 경영학, 교육학, 국어국문학, 한국어교육학 전공 교수가 응해 주었다. 이들에 대한 정보는 따로 밝히지 않는다.

경우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교수마다, 혹은 상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랐는데, 이를 일종의 전략 사용의 노력으로 보아 가산점을 주는 경우도 있었으나 불필요한 내용을 덧붙여 답변이 부실함을 가리려는 의도로 보아 오히려 감점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질문에 대해 교수들은 대체로 학생들의 답안에 비문이 없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는 한, 평가에 크게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답하였다. 즉 내용이 충실하고 답안의 형식이 제대로 지켜진 경우 사소한 철자법이나 조사, 어미 등의 오류는 감점 처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 외에 올바른 연어(collocation) 사용, 전공 관련 어휘의 정확한 사용, 적절한 사고도구어의 사용 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또한 교수들은 답안의 기술 방식에 대해 학습자들이 노트 필기를 하는 것처럼 개조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과 구어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교수들은 개조식 서술이나 요약식, 도식화 등에 대한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답안은 서술형으로 작성하는 쪽이 수험자들의 지식과 논리의 흐름을 살피기에 좋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4. 자료 분석 방법 및 분석 결과

4.1. 분석 자료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서울에 소재한 S 대학교의 학부에서 실시한 중간/기말고사 답안지이다. 유학생들의 국적은 모두 중국이다. 자료의 구성을 <표 1>에 밝힌다.

<표 1> 답안 자료의 구성⁹⁾

번호	학과 및 과목명	형태	시험 문제	작성자 정보
1	국어국문/ 형태론	기말	한국어 보조용언의 종류와 문법적 기능에 대해 아는 바를 쓰시오.	A 한국 2학년 B 유학생 2학년 C 유학생 2학년
2	경영/ 경영정보 시스템	기말	e-tailing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e-tailing 기업에서 해결해야 하는 대표적인 비즈니스 이슈들에 대해 세 가지 이상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A 한국 1학년 B 한국 1학년 C 유학생 1학년

위의 답안을 작성한 학생들은 모두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유학생들은 모두 중국인이다.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답안은 한국 학생과 유학생 공통적으로 평가 항목에서 요구하는 대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답안을 택하였다.

4.2 분석 기준

본 연구에서는 Tribble(1997)에서 제시된 쓰기 과제 수행에 필요한 네 가지 범주의 지식, 즉 내용 지식(content knowledge), 맥락 지식(context knowledge), 언어 구조 지식(language system knowledge), 쓰기 과제 수행 절차에 관한 지식(writing process knowledge)을 분석 기준의 근간으로 삼았으며, 사회언어학적 측면에서 ‘격식’을 별도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 기준은 한국 학생의 답안 텍스트와 유학생들의 답안을 분석하는 데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이며, 여기서 도출된 답안의 특성은 학습자들의 답안 쓰기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9) 좀더 많은 자료를 다루고자 하였으나 지면이 제한된 관계로 두 항목만 선정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시험은 2010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에 해당된다.

<표 2> 답안 분석의 기준

내용적 측면	① 문항이 요구하는 내용(주제)을 충실히 다루었는가 ② 추가 서술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긍정적 역할을 하는가 ¹⁰⁾
맥락적 측면	③ 문항이 요구하는 과제를 모두 수행하였는가 ¹¹⁾ ④ 답안에 사용된 어휘 및 표현이 전문성을 갖추었는가 ¹²⁾ ⑤ 답안 텍스트에서 기대되는 격식이 잘 드러나 있는가 ¹³⁾
언어 구조적 측면 ¹⁴⁾	⑥ 내용 전개에 충분한 텍스트 길이와 문장 복잡성을 보이는가 ⑦ 내용 전개에 필요한 담화 표지 및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였는가
쓰기 과정 측면	⑧ 주제 및 과제에 맞는 내용 전개 방식을 적용시켰는가

- 10) 간혹 답안 작성 시에 문제에서 요구된 것 이외의 것을 덧붙이는 경우가 있다. 이는 보통 학습자들이 (1) 자신의 답안이 불충분하다고 인식하여 답안의 양을 보충하여 점수를 더 받고자 하는 전략, (2) 주제와 관련하여 심화 기술 함으로서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 기술에 완결성을 더하고자 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경우 평가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두 번째 경우는 내용의 적절성 여부에 따라 평가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 11) 신필영(2008:45)에서는 학부 기출문제를 분석한 결과 시험 문항 유형으로 크게 ‘논하시오, 설명하시오, 서술하시오, 정의하시오, 비교·대조하시오’ 등이 있다고 정리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전공과목의 기출문제를 좀더 다양하게 수집하고 조사한 결과 위의 분류에 속하는 하위 과제로 ‘요약하기, 장단점 기술하기, 예시하기, 문제 지적 및 해결 방안 제시하기, 하위 유형 기술하기, 원인-결과 기술하기, 과정 설명하기’ 등의 다양한 유형을 더 설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분석에서도 좀더 세분화된 과제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 12) 어휘 사용에 관한 내용은 언어 구조적 범주에 포함시킬 수도 있으나, 어휘 및 표현의 전문성은 시험 답안 작성이라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이므로 맥락적 지식에 관여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 13) 격식(register)은 문체, 어휘, 형태를 포함한다. 특히 학문 목적 텍스트는 격식적인 문체와 어휘 사용, 완전하고 정확한 문장 사용 등을 특성으로 한다. 문어로 이루어진 학문적 텍스트는 ‘-이다’의 사용, ‘-하여/해’, ‘-하므로’, ‘-하며’, ‘-하나’, ‘-도록 하다’ 등의 형태를 선호한다.(김정숙 2000:15-16)
- 14) 언어 구조적 측면은 내용을 표현하는 문자 언어 산출에 필요한 통사적, 어휘적 지식을 포함한다. 학문적 텍스트는 고차원적 내용을 표현하기 때문에

4.3 분석 결과

4.3.1. 자료 (1) 분석

한국어 보조용언의 종류와 문법적 기능에 대해 아는 바를 쓰시오.
(주요 과제: 보조용언의 분류, 문법적 기능에 대한 설명-열거, 예시 등)

1-A : 한국 학생 답안

한국어의 보조용언은 본용언에 붙어 문법적 의미를 더해주는 기능을 한다. 이 보조용언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보조동사와 보조형용사이다. 먼저 보조동사에 대해 살펴보자면, 보조동사는 시제, 동작상, 피·사동, 부정, 양태의 의미 기능을 가진다. 먼저 완료를 나타내는 보조동사로는 ‘-아/어 버리다’가 있고, 진행이나 보유를 나타내는 것으로는 ‘-고 있다’가 있다. ‘-고 있다’는 착용동사 쓰다, 입다 등과 결합하여 쓰이면 상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또 사동의 의미를 더해주는 것은 ‘-게 하다’가 있고 ‘-아/어 드리다’는 봉사의 의미를 가진다. 또 ‘-아/어 두다’는 상태의 지속·보유를 나타낸다. 본동사+보조동사 구성과 본동사+본동사 구성이 생김새가 비슷하여 간혹 혼동할 수 있지만 두 동사를 둘로 나누어도 의미가 성립하면 본동사+본동사 구성이고 그렇지 않다면 본동사+보조동사 구성이다.

다음으로 보조형용사는 시제, 동작상, 부정, 양태의 의미 기능을 가지는데, 보조동사에서 있었던 피·사동의 기능은 없다. 보조형용사의 예로는 희망을 나타내는 ‘-고 싶다’, 부정을 나타내는 ‘-지 않다’가 있다.

보조용언은 문법화를 겪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문법화란 많이 쓰이는 단어가 문법적 의미까지 가지게 된 것을 말한다. 보조형용사의 하나인 ‘-고 싶다’도 문법화를 겪었는데, 시간이 지나 실질 의미는 잃어버리고 보조형용사로만 쓰이고 있다.

한국 학생이 작성한 위의 답안은 같은 과목을 들은 학생들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은 답안이다. 이 답안을 학습자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모범적인 답안으로 간주하고 <표 1>에서의 기준에 맞추어 분석하고 특성을 밝히도록 한다. 여기서 정리된 특성은 학습자들을 위한 답안 작

논리적 연쇄를 표현하는 긴 호흡의 문장 연결을 요하며, 문장 간의 연결을 위해 담화 공동체가 사용하는 담화 표지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최은지 2009:63-64)

성 교육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표 3> 자료 1-A 분석

내용적 측면	①	보조용언(보조동사, 보조형용사)의 종류와 기능을 다루어 주제에 적합
	②	‘본동사와 보조동사의 구별 방법’, ‘문법화와 보조용언의 관계’ 등을 추가 서술 - 주제와 관련된 심화, 부연설명으로 긍정적 역할을 함
맥락적 측면	③	문항에서 지시된 과제인 ‘분류’와 ‘열거, 예시, 비교’ 등이 충실히 이루어짐
	④	본용언, 보조용언, 보조동사, 보조형용사 등의 필수적 용어 외에 완료, 상, 피사동, 부정, 양태 등의 관련 용어를 적절히 사용하였으며, 전문성을 지니고 있음
	⑤	문어체, 객관적 서술, 격식적 어휘 및 표현 사용으로 시험 답안이 요구하는 격식에 맞음
언어 구조적 측면	⑥	텍스트의 전반적 길이는 적절함.15) 문장은 대체로 2개 이상의 절이 결합한 복문으로 고차원적 지식을 전달하기에 적합함
	⑦	내용 전개 방식에 따른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음 [설명] ‘-은/는 ~ 기능을 한다’ [분류] ‘-은/는 ~로 나눌 수 있는데, -와 -이다’ [예시 및 열거] ‘먼저 -로는 -이/가 있고, -로는 -이/가 있다. 다음으로 -는, -의 예로는’ 등을 적절히 사용함
쓰기 과정 측면	⑧	‘용어 설명 - 분류 - 상술·예시① - 부연 - 상술·예시② - 종합 부연’으로 전개 구조가 적합함

다음은 위와 동일한 문항에 대해 유학생이 작성한 답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유학생의 답안에 대해서도 동일한 분석 기준을 적용한다.

15) 한 시간 내에 위와 비슷한 유형의 문항 5-6개에 답하는 시험이었음을 감안하면 위 답안의 길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텍스트 길이가 적절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필요한 내용을 요구된 수준에 맞게 담고 있으므로 텍스트 길이가 적당하다고 주관적으로나마 판단할 수 있다.

자료 1-B : 학습자(1)¹⁶⁾

한국어 용언은 본용언이랑 보조용언을 나눴어요. 보조용언도는 보조동사랑 보조형용사를 나눴어요. 보조동사 중에 보유, 진행, 과거, 사동, 피동, 공대법 등이 있어요. 보유 의미를 갖는 보조동사는 놓다, 되다. 예를 들어 “편지를 써 놓았어요” 진행을 의미 갖는 보조동사는 “저는 편지를 쓰고 있어요”의 “고 있다”는 보조동사예요. 사동, 피동을 예를 들어 엄마가 아기에게 우유를 먹기다. “먹기다”는 사동예요. “열리다, 읽기다, 잡히다”등 사동이고 “세워다”등 피동예요. 과거를 의미 갖는 보조동사는 “나는 어제 과자를 먹어 버렸어요”에 “버리다”는 과거 의미 갖는 보조시다”, “들어가지다” 등 있어요. 보조형용사 중에 공대법도 있고, 진행, 소유, 피동 등 나눴어요.

<표 4> 자료 1-B 분석

내용적 측면	①	주어진 주제인 보조용언이 아닌 용언에 대한 기술로 도입 보조동사와 보조형용사에 대해 다루고는 있으나 보조형용사 부분의 비중이 극히 적어 내용 불균형이 심함
	②	추가 기술이 없음
맥락적 측면	③	분류와 설명으로 내용을 전개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기술이 불충분함
	④	보조용언의 기능 설명에 필요한 용어가 제한적으로 사용됨 ¹⁷⁾
	⑤	구어체(-이랑)와 비격식적 종결형(-아/어요/예요) 등의 사용으로 답안 텍스트의 격식에서 벗어남
언어 구조적 측면	⑥	텍스트의 전체 길이가 짧고, 문장은 단문 위주로 구성되어 내용 전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함
	⑦	분류 표현 : ‘*-는 ~를 나누다’를 사용했으나 ‘-는 ~로 나눈다(피동)’ 혹은 ‘-는 ~로 나눌 수 있다’로 고쳐야 함. 예시 표현 : ‘예를 들어’와 ‘예를 들면’를 구별하지 못함 형태의 정확성 부족,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문장, 서술어의 부적절한 생략 등의 문제
쓰기 과정 측면	⑧	‘분류-하위분류-열거-예시/열거’로 전체적인 구조 불균형

16) 사실상 이 답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내용에 대한 학습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선 형식적인 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7) 1-A 답안에서는 ‘시제, 동작상, 피·사동, 부정, 양태, 완료, 보유, 봉사, 지속, 희망’ 등의 용어가 사용된 반면 1-B에서는 ‘보유, 진행, 과거, 사동, 피동, 공대법, 소유’의 제한된 용어가 사용되었다.

자료 1-C : 학습자(2)

한국어 보조용언은 보조동사와 보조형용사 두 종류로 나눈다. 보조동사는 크게 보면 시제와 동작상에 관련된 것, 사동과 피동에 관련된 것, 부정에 관련된 것, 양태에 관련된 것, 시제와 동작상에 관련된 것 분석하되 완료 의미를 갖는 동사, 예를 들어 “내가 사과 세 개를 먹어 버렸다” 중에 “버렸다”는 완료는 의미를 갖고 있다. 또는 진행 의미를 갖는 동사, 예를 들어 “그녀는 편지를 쓰고 있다” 중에 “쓰고”는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다. 사동과 피동에 관련된 것 분석해 보며, 두 가지 예를 들어며 사동인 경우 “엄마가 아이를 옷 입게 하였다”는 사동이고, “부모님을 따로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는 피동이다. 부정에 관련된 것 분석해 보며, 예를 들어 “나는 더 이상 울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양태에 관련된 것 분석해 보며 봉사 의미를 갖는 동사가 있다. 예를 들어 “할머니께서 죽을 사 드렸다” 이 중에 “드렸다”는 봉사의 의미를 갖고 있다. 보조형용사도 마찬가지로 시제와 동작상에 관련된 것, 부정에 관련된 것, 양태에 관련된 것,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형용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행태를 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제와 동작상에 관련된 예는 “나 지금 샤워하고 있다” 부정에 관련된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춥지 않는다” 양태에 관련된 예를 들어 희망 의미를 갖는 예 “나도 같이 여행을 가고 싶다” 또는 추측 의미를 갖는 예 “그 두 사람 아는 사이인가 보다” 이상은 보조용언의 종류와 문법적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표 5> 자료 1-C 분석

내용적 측면	①	보조용언을 보조동사와 보조형용사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기술함
	②	본문 내에는 추가 기술이 없으나, 불필요한 결말을 덧붙임 ¹⁸⁾
맥락적 측면	③	용언의 분류, 각각의 기능 열거, 예시로 과제를 모두 수행함
	④	주제 기술에 필요한 어휘들이 대부분 사용되었으며, 용어와 개념이 전문성을 지니고 있음
	⑤	문어체, 객관적 진술, 텍스트 특성에 맞는 어휘 사용 등은 격식을 갖추었으나,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문장 사용에서 격식성이 떨어짐
언어 구조적 측면	⑥	양적으로 볼 때 텍스트가 다소 길어 보이나 중복되는 표현들을 제하고 나면 실제 텍스트 길이는 내용 전개에 충분치 않은 한 문장이 지나치게 많은 절의 연속으로 이어짐
	⑦	‘-는 크게 보면 ~’ 등의 정확한 사용 ‘-는 ~ 두 종류로 나눈다’ →나뉜다(피사동 오류) ‘예를 들어’와 ‘예를 들면’의 구분 부족 서술어의 부정확한 사용, 부적절한 생각이 빈번함

		동일한 구문과 표현을 기계적으로 반복하여 전반적으로 중언부언함(redundant)
쓰기 과정적 측면	⑧	텍스트 전개 방식은 ‘분류-하위개념①-예시, 하위개념②-예시-결말’로 체계적으로 기술됨

학습자가 작성한 자료를 비교해 보면 자료 1-C가 1-B에 비해 기술 내용이 풍부하다. 두 답안의 근본적 차이는 학습의 양과 학습 내용의 이해와 기억에 있겠지만, 이 외에 내용 전개 방식, 구조의 체계성, 문체, 격식성 등이 답안의 완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볼 때 1-C가 1-B보다 격식에 맞고 성실한 답안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C 답안 각 문장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다는 점, 담화 표지의 부정확한 사용, 문장의 완결성 부족 등에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4.3.2. 자료 2 분석 결과

다음은 경영학과에 개설된 「경영정보시스템」 강의에서 실시된 기말고사의 답안과 그 분석 결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p>e-tailing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e-tailing 기업에서 해결해야 하는 대표적인 비즈니스 이슈들에 대해 세 가지 이상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p> <p>주요 과제 : 개념 설명(정의, 유사 개념 등 포함), 문제점 제시 및 상술(문제의 원인, 상황, 해결 방안 등 포함)</p>
--

18) 마지막의 ‘이상은 보조용언의 종류와 문법적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와 같은 문장은 한국인에 의해 생산되는 답안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이다.

자료 2-A : 한국 학생

e-Tailing은 electronic retailing의 합성어이며 ‘전자 소매 거래’라고도 한다. 주로 기업에서 e-Tailing에 참여하게 되는 이유는 Marketing Channel의 확보에 있다. 주요 이슈로는 기존 off-line과의 Channel conflict가 있을 수 있다. 오프라인 상점에서의 경상비가 많이 들어감에도 기업은 on-line으로 동일 가격, 혹은 더욱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화장품 제조업체인 에00 00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오프라인에서의 충분한 설명과 제품에 대한 우선적 공급을 약속하여 문제를 해결한 성공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Blick and Mortar 기업이 Click-and Mortar로 가는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Biz Model을 어떻게 수용하는가의 문제이다.

<표 6> 자료 2-A 분석

내용적 측면	①	e-tailing의 개념, 목적, 문제점을 다루어 주어진 주제 포함
	②	‘기업에서 e-tailing에 참여하는 이유’를 덧붙였으나, 특별히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함
맥락적 측면	③	문항에서는 문제점을 세 가지 이상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두 가지만 언급하여 기본적 과제를 수행하지 못함
	④	주제 관련 어휘로 e-tailing, 전자 소매 거래, marketing channel 확보, 오프라인 상점, 경상비, 온라인, blick and mortar(오프라인 상점), click and mortar(온·오프라인 제휴 상점) 등의 전문적 어휘 사용
언어 구조적 측면	⑤	문어체, 어휘와 표현 사용에서 답안의 격식에서 벗어나지 않음
	⑥	다른 학생들의 답안과 비교할 때 텍스트 짧은 편인데 이는 문제에서 요구한 기본 사항을 충실히 기술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문장은 복잡성을 띠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단문 구성으로 내용의 충실한 전달에 부족함
	⑦	개념 정의에 ‘-은/는 ~라고 한다’, 문제점 거론에 ‘주요 이슈로는 ~가 있을 수 있다’, ‘-에 대한 문제도 있다’, ‘-하는가의 문제이다’, 사례 소개에 ‘~한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등의 표현을 적절히 사용
쓰기 과정적 측면	⑧	‘용어 정의 - 동일 개념 소개 - 주요 이슈①+상술 - 주요 이슈② - 추상적 진술’ 구조 이슈①에 대한 상술에서 구체적인 사례가 포함된 것은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되나, 이슈②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부족함

자료 2-B : 한국 학생(2)

E-tailing은 B2C와 동일한 개념으로서 Internet을 이용한 소매점의 판매활동을 의미한다. E-tailing 기업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 이슈들은 첫째, 수익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인터넷 특성상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야만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협력업체들과의 전자상거래 관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판매 상품이 결정되었다면 상품의 재료를 어떻게 공급하고 주문된 상품을 어떻게 배송할 것인지 등에 대해 거래업체들과의 협업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셋째는 생존 가능성을 확보하는 문제로서 2000년 초에 IT bubble 붕괴 이후 많은 e-tailing 업체들이 도산하게 되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새로운 Biz모델들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신규 IT 기술들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통해 기업의 수명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표 7> 자료 2-B 분석

내용적 측면	①	e-tailing 개념, 이슈 세 가지 등 기술 내용이 주어진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음
	②	추가 기술된 부분 없이 간단명료하게 답안을 작성함
맥락적 측면	③	개념 정의, 해결 방향에 대한 진술을 포함한 문제점(이슈) 제시라는 과제를 모두 수행함
	④	e-tailing, B2C(Business to Consumer), 판매 활동, 수익성 확보, 규모의 경제, 전자 상거래, 공급, 배송, 거래업체, 협업체계, IT 버블, 도산, Biz 모델 등 전문성을 띤 핵심용어 및 관련 용어 사용
	⑤	설명과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하는 텍스트 성격에 맞는 격식을 갖추. 문어체, 격식 있는 어휘를 사용함
언어 구조적 측면	⑥	주어진 주제와 과제를 포괄하였으며,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기술이 없어 텍스트 길이는 적당한 것으로 보임, 문장은 단문과 2-3개의 절을 결합시킨 복문이 함께 사용되어 효율적으로 내용을 전달함
	⑦	정의에 ‘-은/는 (-와 동일한 개념으로서) -을/를 의미한다’, 주의 요구/문제 해결 방안 제시에 ‘-이/가 필요하다’, ‘-아/어야 한다(할 것이다)’ 등의 사용, ‘첫째, 둘째, 셋째’ 등 열거에 필요한 담화 표지를 적절히 사용함
쓰기 과정적 측면	⑧	‘개념 정의 - 동일 개념 제시 - 이슈①+상술 - 이슈②+상술 - 이슈③+상술’로 문항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전개하기에 이상적인 텍스트 구조

한국 학생에 의해 작성된 답안이지만, 자료 2-A의 경우 사실상 모범적인 답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평가 면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은 답안이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답안에 제대로 기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인/유학생을 막론하고 답안 작성에서 관찰되는 문제점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자료 2-A와 달리 자료 2-B는 비교적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하고 요구 사항에 충실히 답한 답안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답안의 내용 구조와 핵심어 사용, 내용 전개에 적절한 담화 표지 사용 등에서 이상적인 답안으로 평가된다. 다음은 유학생에 의해 작성된 답안을 분석하도록 한다.

자료 2-C : 학습자

e-tailing은 전자소매거래입니다. 보통 컴퓨터를 통해서 도매상 또는 소매상들이 직접 고객으로 소량 판매하는 것이다. The direct sale of products through electronic stores through electronic malls, usually designed around an electronic catalog format auctions. 상품은 제시하실 때 고객들 어떻게 더 직접 보이는 것보다 더 할 거신가 확실하게, 각각 면면 다 전시한다. 구매 후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 신용을 지켜야 한다.

<표 8> 자료 2-C 분석

내용적 측면	①	e-tailing의 개념과 문제점을 다루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음
	②	영어로 기술한 부분은 앞 문장의 내용과 일정 부분 중복되며, 내용 전개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함
맥락적 측면	③	개념 정의 과제는 수행하였으나, 이슈 제기와 그에 대한 설명은 수행하지 못함
	④	‘전자소매거래, 도매상, 소매상, 상품 전시, 서비스’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특별히 전문성을 띤 용어가 없으며 수적으로도 매우 제한됨
	⑤	종결형의 비일관성(-입니다, -다), 영어 설명의 개입, 부정확한 표기(거신가, 중요하다) 등에서 답안의 격식을 갖추지 못함
언어 구조적 측면	⑥	텍스트 전체의 길이가 매우 짧고, 문장은 2-4어절로 구성된 단문이거나 매우 장황하고 긴 문장이 쓰여 답안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하지 못함

	⑦	개념 정의에 ‘-은/는 -입니다’(정의의 가장 단순한 구조)를 사용하였으며, 이 외에 특별한 문법이나 표현, 담화 표시 등이 전혀 관찰되지 않음
쓰기 과정적 측면	⑧	‘개념 정의 - 부연 설명 - 이슈① - 이슈② - 이슈③’의 단순한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슈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 불완전한 구조를 보임

자료 2-C를 검토한 결과 이 학습자의 경우 전공 강의의 내용에 대한 학습이 부족할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국의 대학이라는 담화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답안 텍스트의 형식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¹⁹⁾

4.4 분석 종합

자료(1~2)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표 9>에서는 학습자(혹은 한국 학생)의 답안 작성에서 보이는 특성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은 답안 작성법 교수에서 특별히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다.

<표 9> 학습자 답안 작성에 드러난 특성

내용적 측면	①	학습자 대부분이 주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답안 작성 내용 역시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
	②	간혹 불필요한 문장을 덧붙여 마무리하거나 한국어로 쓴 내용을 다시 외국어(주로 영어)를 사용하여 반복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맥락적 측면	③	주어진 내용 기술 과제(정의, 분류, 예시 등)를 대체로 성실히 수행함
	④	답안에 사용된 어휘의 전문성과 다양성이 부족함
	⑤	구어적 표현의 사용, 비격식적 종결형 사용, 불완전한 문장 등에서 답안의 격식을 갖추지 못함

19) 이 답안을 작성한 학습자의 경우는 내용에 대한 학습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진 문제도 있고, 한국어 능력 자체가 학문을 수행하기에 부족한 경우인 것으로 보인다.

언어 구조적 측면	⑥	기술 내용의 부족으로 텍스트의 전체적 길이가 짧은 편, 문장은 대체로 단순한 구조의 단문이거나 장황한 문장으로 의미 전달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함
	⑦	논리 전개 방식에 따른 특정 표현들-예시, 분류, 설명, 정의 등에 필요한 표현 사용의 오류, 주어-서술어의 불완전한 호응, 적절한 생략 필요, 중언부언한 표현의 문제
쓰기 과정적 측면	⑧	대체적인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각 부분을 체계적으로 충실히 전개하지 못함

5. 시험 답안 작성법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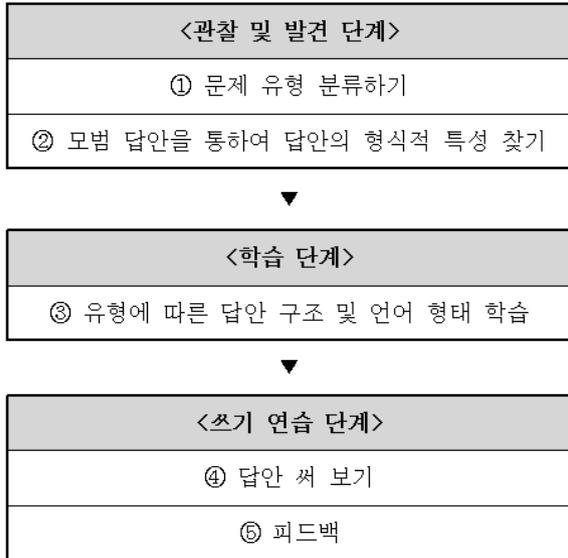
대학에서의 시험 답안은 담화 공동체가 공유하는 쓰기 목적, 사회 문화적 상황 맥락, 언어의 형식과 내용, 방법 등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장르로 인정될 수 있다.²⁰⁾ 따라서 특정 학문 분야의 전문적 독자(교수)에 의해 읽힐 것을 전제로 하며, 자신의 학습 정도나 지식 정도를 평가 받을 목적으로 쓰는 글인 시험 답안 작성법을 교육시킬 때는 텍스트를 작성하는 목적과 그에 따른 텍스트의 형식적, 내용적 제약을 강조하는 장르 중심 교수법(genre approach)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²¹⁾

장르 중심 교수법은 ‘보기 글 제시, 협력하여 쓰기, 스스로 쓰기’ 과정이 순환적(recursive)으로 반복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김영미, 2010) 여기서는 답안 작성의 특성과 필요를 고려하여 <그림 1>과 같이 수업 절차를 도식화하였다.

20) 학문적 상황에서의 장르에 대한 설명은 박영순(2010:465)를 참고하였다.

21) 장르 중심 교수법은 텍스트의 특성과 언어적 지식을 명시적으로 교육하며, 목표 텍스트 완성 능력을 구체적으로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결과 지향적인 성격을 띤다.(김영미 2010)

<그림 1> 답안 작성 수업 절차



다음은 각 단계에서 수행할 기능과 과제를 상술하도록 한다.

(1) 관찰 및 발견 단계

① 문제 유형 분류하기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유형의 문항들을 접하고 문항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활동을 한다. 특히 시험 문항의 서술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피고 요구되는 답안의 기술 방식이 ‘설명, 서술, 정의, 비교·대조, 요약, 예시, 문제와 해결’ 가운데 어떤 것에 속하는지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²²⁾

22) 자료를 선별하고 제시하기 위해 보편적인 시험 문항 유형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② 모범 답안을 통하여 답안의 형식적 특성 찾기

위의 분류 중 하나에 속하는 문항의 모범 답안을 학습자에게 제공한다. 학습자들은 답안을 읽으면서 구조와 언어 형식에 초점을 맞춰 시험 답안의 특성을 파악해 보는 활동을 한다.

(2) 학습 단계

③ 유형에 따른 답안 구조 및 언어 형태 학습

이 단계에는 문항 유형에 따른 전형적 답안 구조와 언어 표현을 학습한다. 학습자들은 교사로부터 한국어 시험 답안의 형식적 특성에 대해 명시적 설명을 들으면서 이전 단계에서 관찰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다. 이 단계의 주요 학습 내용은 문항에서 요구하는 내용 전개 방식과 그에 맞는 담화 표지 등이 될 수 있다.

(3) 쓰기 연습 단계

④ 답안 써 보기

답안 쓰기 연습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전공과 관련된 주제 혹은 특정 전공에 관련되지 않은 주제지만 학술적 맥락에서 제시될 수 있는 문제(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 등)를 제시한다. 학습자들은 앞서 학습한 대로 문항의 유형을 분석하고, 요구된 주제 및 과제를 파악한 뒤 답안의 형식적 틀(수사 구조)을 결정짓는다. 답안에 필요한 내용을 마련하고²³⁾ 이를

23) Jordan(1997)에서는 대학에서 필요한 학습 활동과 기술 중 시험에 대해 ‘효율적으로 준비하기(암기, 이해, 비판적 시각 등)’, ‘시험 답안 작성 시간 배분하여 쓰기’, ‘질문이나 지시사항 이해하기’, ‘분명하고 정확하게 설명, 묘사, 표현하기’ 등을 든 바 있다. 이 가운데 효율적으로 준비하기의 경우 한국어 수업에서 다룰 부분은 아니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수업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Jordan이 언급한 ‘시간 배분’ 역시 전략적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준비된 형식과 언어 형태에 주의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한다. 학습자들이 다양한 유형의 답안 쓰기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연습 활동을 충분히 마련한다.

⑤ 피드백

답안 작성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피드백 과정을 두어 학습자들이 작성한 텍스트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수정하도록 한다. 피드백을 통해 학습자들은 문제가 발생한 단계로 돌아가 수정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즉 답안 작성이 실패한 원인이 문항 유형 분석의 오류에서 기인한 것인지, 혹은 답안의 구조나 언어 형태에 대한 이해 부족의 문제인지를 파악한 뒤 그 부분부터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 연구는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이 자신이 습득한 지식을 시험 상황에 맞게 조직하고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과, 이 문제가 그들이 내용적 지식 습득 여부 외에 시험 답안의 격식과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대학에서 시험은 사실상 비중이 매우 높은 평가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답안 작성과 관련된 서술식 쓰기 교육이 그동안 등한시 되어 왔다는 점도 문제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답안 쓰기 교육 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 학생과 유학생이 작성한 답안 텍스트를 비교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학생의 답안이 한국 학생들이 작성한 답안과 비교할 때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만한 요인들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할 부분이므로 수업에서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았다. 마지막 두 항목은 한국어 수업에서 초점을 두어야 할 학습 기술이므로 비중을 두어 다루었다.

시험 답안은 문제의 유형에 따라 기술 방식이 결정되는 유동성을 지닌 텍스트지만 특정 독자가 읽을 것을 전제로 하며, 그 생산 목적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일종의 장르(genre)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시험 답안에 대한 교육은 장르 중심의 접근법을 도입하여 교육할 것을 제안하며, 대략적인 교수 절차를 제시하였다.

답안 작성 교육의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와 같은 답안 텍스트 분석을 통한 대조적 연구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학술적 상황에서 분야별로 주어지는 시험 문제의 유형과 그에 따른 답안 작성법을 유형화시키는 연구가 기초 연구로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학습자들에게 주어질 시험 과제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는 대학에서의 시험 답안이 지니고 있는 담화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하며, 그것을 유형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시험 답안 작성법 교육은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교수요목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험 답안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살펴보았기 때문에 많은 학습자(한국 학생, 한국어 학습자)들의 자료를 대상으로 삼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한국어 학습자들의 국적 역시 중국인으로 한정되어 답안 작성에서 발생한 차이가 모국어의 간섭에 의한 것인지도 확인되어야 한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또한 국적, 학년, 전공 등이 다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시험 답안 작성 교육 모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 확인된 효율성과 문제점 등을 보완하는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김영미(2010).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 -장르 기반 접근법으로-, <한국어교육> 21-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87쪽~123쪽.

김은정(2010).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양한국어 교수요목 개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인규(2003). 학문 목적을 위한 한국어 요구 분석 및 교수요목 개발” <한국어교육> 14-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81쪽~118쪽.

김정숙(2000). 학문적 목적의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기초 연구 -대학 진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1-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쪽~19쪽.

김정숙(2007). 읽기·쓰기 활동을 통합한 학술 보고서 쓰기 지도 방안.” <이중언어학> 33, 이중언어학회. 35쪽~54쪽.

김정숙(2009). 내용 지식 구성을 위한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20-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3쪽~44쪽.

김정숙(2010). 한국어 쓰기 능력 평가 방안 -종합적 채점과 분석적 채점 결과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43, 이중언어학회. 81쪽~99쪽.

김지영a(2007). 보고서 쓰기와 발표하기를 통한 고급 단계의 프로젝트 수업 연구.” <한국어교육> 16-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49쪽~79쪽.

김지영b(2009).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 읽기 활동이 학습자 텍스트의 결속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목계연(2008). 대학 수학 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 연구: 설명적 텍스트의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신필여(2008).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설명적 쓰기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용재은(2004). 대학 수학 목적의 한국어 읽기 쓰기 교육 방안 연구: 학문적 텍스트 분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윤경숙(2007).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쓰기 교재 개발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원구(2005). 텍스트 구조 지도를 통한 학문적 쓰기 교육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혜영(2001).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 <이중언어학> 18, 이중언어학회. 279쪽~301쪽.

정다운(2007). 중국인과 일본인의 한국어 작문 텍스트 대조 분석-텍스트 구조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3호. 215쪽~243쪽.

정다운(2009). ‘장르’와 ‘과정’의 통합적 쓰기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 고급 학습

자를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진대연 · 김민애 · 이수미 · 홍은실(2006).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텍스트에 대한 대조 수사학적 연구, <한국어교육> 17-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25쪽 ~ 356쪽.

최은지(2009). 사회적 구성주의에 기반한 학문 목적 한국어 작문 교육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홍정현(2005).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요구 분석, 이화여자대학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Jordan, R. P.(1997). *English for Academic Purpo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Kaplan, R. B.(1966). Cultural thought patterns in inter-cultural education. *Language Learning* 16. pp. 1-20.

이승연(Lee, Seungyeon)

세종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43-747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98

전화번호: 02-3408-3638

전자우편: seungyeon@sejong.ac.kr

투고일자: 2011. 8. 20

심사(수정)일자: 2011. 9. 14

게재결정: 2012. 1. 30